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 축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법조인들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함을 축하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 의식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법조인들의 성인지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외 전체 대여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과 성폭력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성폭력피해 신고율은 6%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사건의뢰와 재판과정에서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성평등 의식 부족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성폭력 사건 관계자들의 성의식이 실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법 언어와 법 해석으로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피해 여성의 경험과 고통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경험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와 성인지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법조인들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한국여성재단 '2003년도 정기신청공모사업'으로 수행한 <법조인들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성폭력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는 현장에서 얻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조인들의 성의식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중한 결실이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법조인들의 성의식을 변화시키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도구로 충실히 활용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법 관행이 정착되고 성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더불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